



일본, 三菱化學 · 東亞合成
염화비닐 사업 통합

일본의 三菱化學과 東亞合成이 지난 달 2일, 염화비닐수지 사업을 통합한다고 발표했다.

2000년 4월에 공동출자를 통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양사의 제조, 판매, 연구개발부문을 이관할 계획을 함께 발표한 이 두 회사에 따르면 새로운 회사는 국내의 생산능력에서 大洋연비, 信越化學工業에 이어 3위의 세력으로 부상하게 된다.

이것은 경기침체로 인한 국내 수요의 감소와 가격 저하로 염화비닐사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

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사업통합을 통한 합리화를 서두르므로 생존을 도모한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새로운 회사는 三菱化學이 60%, 東亞合成이 40%를 출자하여 설립한다.

종업원 수는 당초 약 1백80명이며, 연간 3백억엔 전후의 매출을 목표로 한다.

일본 폴리켄, 식품 포장용 고무명 PP 쉬트 개발
편리성 도시락 뚜껑재 등으로 수요 확대 예상 레진 판매

일본 폴리켄은 종래보다도 투명성·강성이 뛰어난 식품 포장용 PP 쉬트를 개발했다. 상품명



은 '에코로뷰슈트'이다.

도시락의 뚜껑재 등 BOPS 슈트가 주류인 분야에서 대체 수요를 노리고, PP 레진 마켓의 확대를 겨냥한 것이다.

레진, 방담제를 개발한 동사는 카시마 공장에 특수한 시팅(シーティング) 장치도 도입 했다.

당장은 식품 용기 메이커에 슈트를 판매할 예정이다나, 용기 성형기의 개량과 전용시팅(シーティング) 장치의 제안 등을 진행한 후, 원료 레벨(レベル)로 확대할 예정이다.

일본 大日本紙業, 환경대응형 골판지 개발
분별회수 시간 절약 특징

일본 동해지구의 골판지 가공메이커는 환경문제 대응형 상품개발에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2000년 4월부터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에 의한 분별회수가 본격화되는 것을 기회로 삼아 발포스티렌이라든가 플라스틱과 같은 대체수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산업활동의 정체에 의한 수요 감소를 만회하기 위한 최후의 방책으로 최대의 수요분야라고 하는 환경분야에서 지혜를 모아 살아남으려는 것이다.

大日本紙業은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릴 수 있는 판지제 트레이, 도시락의 실용화에 전력하고 있다.

다소의 수분이라든가 기름이 있을지라도 괜찮기 때문에 분별회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식품업계용 포장재가 주력이기 때문에 트레이라든가 도시락은 수퍼를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하는 등 이미 신규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일본 하이팩은 2000년도 중에 발매를 목표로 신문지를 활용한 완충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잘게 썬 신문지는 쿠션재로 재이용하고 100% 회수할 수 있다.

中央紙器工業은 플라스틱제 대신에 골판지제 상품배달용 상자 'MC 박스'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반환할 수 있는 타입으로 폐기도 용이한 것이 메리트이다.

주력상품인 원터치로 조립할 수 있는 청과물용 상자의 기술을 응용하여 접으면 시트형이 되어 보관장소의 면적을 줄일 수 있다.

독일 Theis 사, 동시공정 시스템
우수한 품질과 신속성 보유

독일 Wuppertal에 위치한 Artur Theis GmbH & Co. KG 회사는 제약산업용 포장박스를 생산해 왔는데, 그간 유연성있는 시간 비용과 함께 경제성있는 소형 물품의 생산을 성공적으로 해왔다.

“독일의 유력한 중소제약산업용 포장제조업체들간의 경쟁압력이 심하다. 오늘날 이 분야의 성공요소는 진행공정과 단일 근원, 그리고 독일제약포장품질협회(GQAPP)의 지침을 준수한 GMP상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는 포장박스 생산품에 해당할 뿐 아니라 시장을 보증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Jurgen Theis사장은 그의 회사 철학을 위와 같이 요약했다.

제약제조업체들의 요구에 최대한으로 신속하고 유



연성있게 대처하는 회사만이 오늘날 다량의 일 팔된 규격으로 원가를 낮추는 재정적으로 막강한 대규모 회사들에 대해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 Theis사는 제한되고 명확히 정해진 서로 다른 박스 형태들을 요구하는 고객들을 위한 회사이다.

여기서, 전문가들은 비쌀 것으로 생각되는 소량의 시리즈에 대해 존재하는 합리성을 최대한으로 이용한다. 여러 개별 주문들은 그와 동일 형식의 대규모 시리즈에 따라 생산하므로, 고객들은 값비싼 공구의 재편성 단계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박스의 인쇄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뿐이고 인쇄와 접착은 표준화돼 있다.

독일의 포장박스 제조업체는 정확하게 정의된 시간 비율을 가진 생산 도입과 공정의 단계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Theis사는 14일 안에 요구된 양의 포장박스를 확실하게 생산하고 배달할 수 있다. 회사의 고객들은 조기 시판 착수에 성공할 분 아니라 저장비용의 절감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일의 진행 작업과 순서가 자동화돼 있는 '동시 공정'에 의해 가능해진 이 절차는 높은 수준의 신뢰도와 그에 따르는 생산성이 요구된다. 이 시스템의 완전한 수행은 Theis사와 그의 고객들에게 새로운 전망을 열어 주었다. 고객회사가 미리 예상했던 저장시설과 그와 연관된 비용의 증가가 필요 없도록 포장박스의 제시시간의 배달이 가능케 한 것이다.

Theis 사장은 "오늘날 아시아 수출을 위한 조사를 시행중인 제약회사는 특히 조사와 마케팅 분야에서 생산품의 두 번째로 중요한 성공요소를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생산품 안에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사용할 부가적인 가능성이 있다." 이는 우선 생산품의 질이 엄격한 GMP의

법규와 올바르게 일치함을 요구한다. 시간적으로 유연한 생산과 함께 이러한 요소들이 Theis사에 있어 가장 우선시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회사에 의해 만들어진 틈새시장이 곧 대규모 회사들에 의해 잠식될 것이라는 두려움은 Wupperal 출신의 사업가들에게는 없다. 그 이유는 포장박스 제조업체를 경쟁자로 관심을 두지 않고 유연한 시장 전략의 상황 속에서 파트너로 인식해주는 고객들에게 넓은 범위에 걸쳐 이익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파트너십은 단일 근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은 이미 일반화돼 있고, Theis사에서는 '달리는 기차에 올라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제 그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표현했다.

인도 제지업계, 대정부 재정구제책 요청 대부금 반제 향후 2년간 유예 주 내용

9백억루피(21억 US\$) 규모의 인도 제지산업계는 재정구제 정책을 인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인도 제지산업은 대부금의 반제를 향후 2년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고, 미반제 부채에 대해서 보다 장기적인 반제 계획과 금리의 절감을 허용하도록 재교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인도제지연합회(IPMA)는 감산과 예상 이상의 저가격으로 인해 몇몇 공장에서 부채의 반제가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어 반제계획은 새로운 예측과 현재의 상황을 토대로 하여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PMA는 앞으로 2년간 소비세를 최소한 50%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인도 제지산업은 연간 60억루피(1억4천1백만 US\$) 이상의 소비세를 지불하고 있다.

IPMA에 의하면 인도제지공장의 대부분은 재정적으로 불건전하고, 몇몇 공장이 지불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 공장들이 산업·재정재건위원회의 지정기업으로 되어 있으며, 또 대부분의 공장이 재정위기로 인해 폐쇄돼 있다.

이들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인도 펄프·제지산업의林地 차지 요구는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위촉받은 계획위원회 작업부회에 의해 거절됐다.

그러나 이 작업부회는 삼림이 아닌 비생산적인 토지를 재생, 원료생산용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펄프·제지산업에 공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느냐고 시사했다.

제지산업은 삼림용지를 직접, 또는 그들의 원료 수요를 충족할 목적으로 삼림개발회사를 통해서 차지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인도 펄프·제지산업에 총 필요면적은 2백ha로 추산된다.

그들의 토지는 황량한 임지이어도 관계가 없지만, 상업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목재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로 최소한 1m 이상의 깊이를 가진 양질의 토양을 가지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산업 측에 따르면 정부는 황무지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들을 개량할만한 자금은 없으나 산업 측은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담당 작업부회는 산업 측의 청원은 옹호하기

어려운 것으로써 황무지라고 해도 빈민의 생활을 유지할 근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작업부회는 산업 측이 사용하게 될 단품종의 조림지는 이들 토지를 보호함으로써 얻어지게 될 것이며, 다품종의 混交林에 비해 매력이 없는 제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삼림국에서조차 임지에 캐슈넛 또는 고무의 조림지 조성을 금하고 있는 점 때문에 작업부회는 민간산업에 의한 임지의 단품종 플랜테이션 조성이 왜 허가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시하고 있다.

펄프·제지산업은 라지스탄주의 사막이라든가 다자르트주의 沼地, 마데이아 프라디슈주의 협곡이라든가 우타르프라슈의 鹽害地와 같은 삼림이 아닌 황무지의 재생이라면 참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 川上産業과 쇼오의 고분자 우수한 품질과 신속성 보유

기포가 들어있는 필름 슈트(기포 슈트)를 川上産業과 쇼오와 고분자(쇼쿄도)와 공동으로 진행시키고 있던 생분해성기포 슈트의 제품화에 성공, '그린 뿌띠'의 상품명으로 판매를 개시했다.

이는 쇼오와 고분자의 생분해성플라스틱 '비오노레'를 채용한 것으로, 토양에 매립하면 미생물에 의해 3~6개월정도에 사소하게 분해되고, 최종적으로는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 분해된다는 것이다.

업체측에서는 당장은 수출용 곤포(梱包) 용도와 농·수산업분야 판매에 주력할 방침이다. ☎